

독일 '인플레이 트라우마' 에 돈 풀기 거부감 ... EU 경제 회복 더딜 것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총장은 금융이론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독점적인 금융회사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틀라인-몬티 모델'의 주인공이다. 동시에 그는 유럽 연합(EU) 집행위원(1995~2004년), 이탈리아 재정위기 순간 총리(2011~2013년)를 지냈다. 학자와 경제사(經世家)라는 두 날개를 갖춘 인물이다. 사공일 분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과 몬티 총장은 지난날 말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FP)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뒤 유럽의 테러와 난민 사태, 글로벌 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했다.

▶사공=EU 경제 대부분이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회원국 대부분은 7년 전 재정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등 중동발 난민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이다. 테러와 난민 사태가 EU의 미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몬티=과거를 돌아켜 보면 EU는 위기 속에서 성숙했다. 달리 말해 위기 속에서 회원국의 정책 협조와 협력이 강화됐다. EU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을 딛고 출범했고 유로 화도 80년대와 90년대 외환위기를 바탕으로 해 출범하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EU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사공=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EU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정은 험난할 듯하다.

▶몬티=나도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 EU와 미국 등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리더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인기영합주의와 민족주의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기는 더욱 어렵다.

▶사공=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한 쉐نگ겐 조약과 경제 안정·성장에 관한 약속인 마스트리트조약이 난민과 테러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몬티=파리 테러 사태가 단기적으로 쉐نگ겐조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글 쓰는 순서	
■마이클 스펄스	뉴욕대 경제경영학 석좌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경제대 경제학 교수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 겸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 (현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총장)

독일 재정지출 안 늘리는 까닭

1차 대전 직후 살인적 인플레이 악몽 부채엔 '유죄' 뜻도 ... 빛내길 꺼려

파리 테러, EU 단합시킬 수도

회원국끼리 정보 교환 긴밀해져 IS 공습 프랑스 재정악화 불가피

이탈리아 위기 때 총리 말야

연금개혁으로 800억 유로 절감

노동개혁 법 제정만큼 집행도 중요

만 테러를 계기로 회원국이 더욱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게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공=그럼 마스트리트조약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국가(IS)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등 국방과 치안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 바람에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가 이전에도 마스트리트조약이 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지키지 못해 예외 인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적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티=테러 사태 때문에 프랑스 재정적자 악화를 예외로 봐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쉽



마리오 몬티 총장(오른쪽)과 사공일 고문이 지난달 20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테러·난민 사태로 일목진 유럽·글로벌 경제를 놓고 대담했다.

지는 않다. 이참에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정책을 교환하고 협력하게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회원국 차원에서 필수적인 공공투자 등을 재정적자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공=공공투자는 주로 인프라 투자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몬티=그렇다. 도로·항만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정보통신고속도로도 잘 대체해왔다. 하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이 구조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QE를 확대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QE 확대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구조조정을 하

게 하는 정치적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사공=그 점에 대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QE 확대가 빛을 많이 쬐어낸 나라

가 지닌 3월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단

순히 기간을 20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공 고문의 질문은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몬티=드라기 총재의 결단과 리더십 덕분에 ECB는 EU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QE 등 훌륭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해왔다.

▶사공=이런 사태가 EU 앞날에 도움이 되는 전회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EU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양적완화(QE) 확대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두 석학 합리적 차원에서 마스트리트조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회원국 차원에서 필수적인 공공투자 등을 재정적자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공=공공투자는 주로 인프라 투자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몬티=그렇다. 도로·항만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정보통신고속도로도 잘 대체해왔다. 하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이 구조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QE를 확대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QE 확대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구조조정을 하

게 하는 정치적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사공=그런 결과는 당신이 총리직을 역임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이겨 내고 연구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몬티=과찬이다. 연구 개혁은 아주 과감했다. 2012~2020년 사이에 800억 유로를 절감한 것이다. 그런데도 나도 많은 일을 했지만 현재 마테오 렌치 정부도 구조조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사공=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은 어떤가. 독일이 과거 '어젠다 2010'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점과 견줘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개혁됐는가.

▶몬티=내가 보기에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의 경험 등에 비해 노동관계법을 잘 제정했다고 할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열쇠는 바로 법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지 여부다.

▶사공=그리스 상황을 좀 살펴보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올해 국민투표를 강행했을 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정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리스는 현재 조용하다. 요즘 그리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몬티=한마디로 그리스 국민 대다수(75~80%)와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스드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는 게 분명하다.

▶사공=그리스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인가.

▶몬티=맞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 국민의 여론은 아주 성숙해 있다. 그들이 유로화를 채택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그리스가 맞도 없이 에게해(海) 물결을 따라 표류하는 작은 배 신세라는 점은 그리스인들은 잘 알고 있다.

▶사공=GDP의 거의 200%에 이르는 그리스 국가부채를 일부 조정하는 일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몬티=나는 단순한 헤어렛(원리금)의 부

분적인 탕감)이 아닌 진정한 부채 구조조정(경제 정상화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리금 탕감과 만기, 이자를 조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공=시선을 독일로 돌려보자. 독일의 현재 속자는 GDP의 8%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EU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다.

▶몬티=그렇다. EU 집행위원회가 나서 독



몬티는 "파리 테러가 장기적으로 유럽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몽트뢰=한불네트웍 이순영)

▶사공=그런 결과는 당신이 총리직을 역임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이겨 내고 연구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몬티=과찬이다. 연구 개혁은 아주 과감했다. 2012~2020년 사이에 800억 유로를 절감한 것이다. 그런데도 나도 많은 일을 했지만 현재 마테오 렌치 정부도 구조조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사공=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은 어떤가. 독일이 과거 '어젠다 2010'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점과 견줘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개혁됐는가.

▶몬티=내가 보기에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의 경험 등에 비해 노동관계법을 잘 제정했다고 할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열쇠는 바로 법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지 여부다.

▶사공=그리스 상황을 좀 살펴보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올해 국민투표를 강행했을 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정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리스는 현재 조용하다. 요즘 그리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몬티=한마디로 그리스 국민 대다수(75~80%)와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스드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는 게 분명하다.

▶사공=그리스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인가.

▶몬티=맞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 국민의 여론은 아주 성숙해 있다. 그들이 유로화를 채택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그리스가 맞도 없이 에게해(海) 물결을 따라 표류하는 작은 배 신세라는 점은 그리스인들은 잘 알고 있다.

▶사공=GDP의 거의 200%에 이르는 그리스 국가부채를 일부 조정하는 일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몬티=나는 단순한 헤어렛(원리금)의 부

분적인 탕감)이 아닌 진정한 부채 구조조정(경제 정상화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리금 탕감과 만기, 이자를 조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공=시선을 독일로 돌려보자. 독일의 현재 속자는 GDP의 8%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EU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다.

▶몬티=그렇다. EU 집행위원회가 나서 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말리오 몬티
1933년 이탈리아 바레세 출생
이탈리아 보코니대 총장
이탈리아 총리(2011~2013년)
이탈리아 경제재정장관
(2011~2012년)
EU 공정경쟁 정책위원
(1999~2004년)
미 예일대 졸업(경제학 박사)
이탈리아 보코니대 졸업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정치가는 다음 세대 생각해”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

2011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구해

EU 근무 땀 '원조 수퍼 마리오'

MS 반독점에 5억 유로 벌금 부과

'수퍼 마리오'라면 근래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떠올리곤 한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겠다(Whatever it takes)"며 시장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보다 10여 년 전엔 마리오 몬티(72) 전 이탈리아 총리를 향한 수식이였다. 1994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당시 이탈리아 총리에 의해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나벨 인터내셔널 인수를 막았다. 독일의 강력한 지역 은행들과도 싸웠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영국 BBC방송) 수퍼 마리오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브뤼셀의 수퍼 테크노크라트로도 여겨졌다. 2011년 재정위기가 유럽을 휩쓸고 갈 때 이탈리아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이 론과 실전을 겸비해 그가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후임으로 떠올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지방직 총리란 한계에도 과감한 간혹과 구조 개혁으로 이탈리아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 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를 부흥시킨 알치데 데카스페리 전 총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 그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발터리안'으로 임명됐다. 유럽 내부 시장과 서비스 담당이었다. 99년부터 5년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약 6300억원)의